

# 다구를 찾아서

2 다연자



## 차는 황실 · 사찰의 중요한 물품

중국 산시성 성도(省都) 시안(西安)은 황하 중류에 위치한 오래된 도시이다. 진·한·수·당(秦漢隋唐) 등의 도읍지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유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다. 그 가운데 시안시로부터 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부풍현(扶風縣)에 위치한 법문사(法門寺)는 석가모니의 손가락뼈인 진신지골사리(眞身指骨舍利)가 모셔진 사찰로 유명하다.

법문사에 진신사리를 모시게 된 연유는 이렇다. 석가모니 사후인 기원전 253년, 제3차 결집 결의에서 사부대중은 부처님 진신사리 8만4000과를 나눴다. 대중은 나뉜 사리와 경전을 들고 각각 포교에 나서기로 했다. 18명의 사문들은 불지사리를 포함한 진신사리 19과를 갖고 중국으로 왔으나, 포교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법문사 터에 사리를 묻었다고 전해진다.



유금홍안유문은다연자(鎏金鴻雁流雲紋銀茶碾子). 법문사 박물관

후한 때(148년) 서역 고승 안세고가 이 진신사리를 발굴

함에 따라 환제(桓帝)가 진신사리의 발굴지에 불탑, 사찰과 지하공전을 짓고 불지사리를 안치했다.

이후 법문사를 뒀던 수차례의 천재지변과 전쟁 등은 사리의 행방을 묘연케 했다. 몇 차례 발굴 시도가 있었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했고, 불사리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했다. 1981년 내민 쪽우로 무너진 보탑을 재건하던 중, 1987년에 지하공전 후실의 비밀 감실(龕室)이 발굴됐다. 감실 입구에서 발견된 '진신지골비(眞身誌文碑)'와 '현의물장비(獻衣物帳碑)'를 통해 이곳에 진신사리가 안치됐다는 사실과 당대의 황실에서 부처님께 올렸던 공양 물들의 규모가 밝혀졌다. 이때 발굴된 3000여 점의 유물은 고고학적인 발굴의 쾌거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발굴품 속에 포함된 당 황실용 다구 입습은 9세기 당 황실의 화려한 차문화가 어떠했는지를 밝히는 단서가 됐다.

당시 발굴된 차 관련 유물로는 다조자(茶槽子), 다연자(茶碾子), 다라자(茶羅子), 시자(匙子), 유리발자(琉璃鉢子), 유리다완(琉璃茶碗), 다탁(茶托) 한조, 장병은자(長柄銀勺), 은척(銀則), 능호형은방합(菱瓜形銀方盒), 반원좌은염대(盤圓座銀鹽臺) 등이 있다. 특히 다라자와 다연자에는 '함통(咸通)'과 '오가(五哥)'라는 명문이 새겨져 눈길을 끈다. 함통(860-873)은 당 의종(懿宗)의 연호이며, 오가는 희종(僖宗)의 아명으로 이 다구의 조성 시기를 밝히는

단서가 됐다. 더구나 다연자는 당대의 제다법과 당법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법문사에서 발굴된 다연자의 공식 명칭은 '유금홍안유문은다연자(鎏金鴻雁流雲紋銀茶碾子)'로 판공기법으로 제작돼 금도금 처리돼 있다. 전체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높이 7.1cm, 가로 27.4cm, 깊이 3.4cm, 가로막 길이 20.7cm, 너비 3cm, 무게 1168g으로 바닥에 '함통 10년 문사원(文思院)에서 은금화 다연자(銀金花茶碾子) 하나를 제작했다. 전체 무게는 29냥이다. 장신(匠臣) 소원심(邵元審), 이사존(李師存), 판관고품신(判官高品臣) 오홍각(吳弘愨), 사신(使臣) 능원(能順)'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문사원은 황제의 일용품을 제작하는 관청이다. 명문은 다연자 등 다구가 문사원에서 주조됐음을 알려준다. 다연자는 꽃무늬가 새겨진 은제

과축(鍋軸: 손으로 잡는 부분)과 원병(圓餅: 바퀴처럼 둥근 부분)으로 이뤄졌다. 다연자의 가장자리에는 작은 톱니모양의 띠가 둘러져 있다. 둥근 바퀴 가운데로 과축을 끼어 사용하며, 둥근 부분의 평평한 부분에 '오가(五哥)'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 둥근 부분을 따라 '과축중십삼량삼질자호(鍋軸重十三兩十七字號)'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과축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축을 꿰는 둥근 부분의 지름은 8.9cm, 축의 길이 21.6cm, 무게 527.5g이다.

당대는 단차를 만들어 음용했던 시기이다. 단차는 떡차의 일종으로 찻잎을 시루에 찌서 절구로 찧은 다음 틀에 넣어 차의 형태를 만든다. 이것을 마시는 방법은 먼저 불에 차를 구워서 다연자에 갈아체에 거른다. 이렇게 만든 가루차를 소금과 함께 넣어 끓여 마셨다. 다연자는 차를 가는 도구로 단차를 즐겼던 당대에 중요한 다구 중의 하나였다.

진신사리가 보관됐던 법문사에서 황실용 다구를 공양한 것은 이미 차가 황실과 사찰에서 일상의 중요한 물품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 차가 부처님 공양물이었던 것을 비롯해 국가적인 행사에서 중요하게 사용됐음을 기능케 한다.

법문사에서 출토된 다구 입습은 바로 이러한 당대의 차문화의 유형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백기란 bbdol@harmalnet 동아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20 백련사 동백



이런 봄에 동백꽃을 보러 갔던 백련사를 찾은 적이 있었다. 겨우내 불어 닳을 바닷바람은 멀리 강진만으로 돌아간 듯했고, 도랑엔 봄바람이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었다. 숲에 들어서자 검푸른 나뭇잎 사이로 붉은 동백이 보였고, 오솔길엔 먼저 핀 꽃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걸을수록 숲은 깊어졌고, 숲이 깊어질수록 숲 밖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숲처럼 깊어갔다. 사람들은 그 '깊어진 것들'을 만나기 위해 숲을 걷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숲을 나설 때 쫓부도 하나를 만났다. 겨우내 목탁소리 와서 맺히고, 겨우내 드나든 사연들 맺혀서 티운 백련사 동백꽃은 다시 풀이 되어가고 있는 부도 앞에 쓰러져 붉은 흙이 되어가고 있었다.

### 옛 판화의 세계

#### 스님이 되어 부모의 은혜를 갚다 (爲僧報父)

당나라 때 석사비라는 스님이 있었다. 석사비 스님이 어린 시절, 어부였던 아버지와 밤에 낚시를 하러 간 일이 있었다. 그때 스님의 아버지는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석사비 스님은 그때의 충격으로 속세의 인연을 버리고 출가했다. 스님은 은사인 설봉 스님에게 의탁해 깨달음을 얻었다. 이 삼화속 그림은 스님이 깨달음을 얻게 되자 어느 날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나 '내가 찾아온 것은, 아들이 출가해 심자를 환히 밝혀 하늘에 태어날 수 있게 된 까닭을 알릴 따름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판화한 것이다.

사비(師備, 835-908) 스님은 중국 당(唐)대의 승려로 수행 초기부터 의식을 절제하며 극단적인 고행을 했다. 스승인 설봉의 존(雪峰義存)은 스님을 '비두타(備頭陀)'라 부르며 지도했다. 사비 스님은 설봉을 따라 상골산에 들어가 수행 정진하던 중 <능엄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됐다. 민왕 왕심지(王審知)의 도움으로 석두(石頭) 회천의 종지(宗旨)를 중흥시켰던 스님은 후량(後梁) 태조 개평(開平) 2년에 나이 74세 법랍 45세로 입적했다. 사비 스님의 13명의 제자 중 나한원(羅漢院) 계침(桂琛)선사가

유명하다. 스님의 어록집으로는 <현사사비선사어록(玄沙師備禪師語錄)> 등이 있다. 어느 날 사비 스님은 여러 지방을 순례하다 험준한 곳에 이르러 됐다. 결국 스님은 바위에 다리를 부딪쳐 부상을 당하게 됐다. "이 몸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아픈 감각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 몸은 괴로운 것이며, 마지막에는 무생이다. 그만두자! 그만두! 말마는 동쪽 땅에서 오지 않았고, 2조 해가는 서천에 가지 않았다."

이때부터 스님은 다시 영남으로 돌아와서 설봉 스님과 함께 선원을 개설하니 현도(玄道)들이 사방에서 모여 들었다. 설봉 스님과 서로 문답하는 경우에도 역시 제자리를 차지하고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를 두고 설봉 스님은 "비두라는 부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사비 스님의 철저한 수행기공을 엿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스님이 깨달음을 통해 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까지 제도 했음을 엿볼 수 있다. 사비 스님의 일화는 영가 천도도 치열한 수행을 통해 마음을 변화시킬 때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한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학박물관 관장)



고관학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위승보부(爲僧報父).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통일하이빌 지하 1층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운주사 www.unjusa.com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마음공부를 위한 깊이 있는 통찰, 도서출판 운주사의 <밝은 사람들 총서>



###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욕망의 본질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욕망이 없는 삶은 과연 행복할까? 반대로 욕망을 추구하는 삶은 행복할까? 욕망은 삶의 주체인 인간이 그 욕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혹은 억압과 발산의 조절능력에 따라 그것이 괴로움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삶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정준영, 한지경 외 | 신국판양장 | 400쪽 | 값 18,000원



###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자아의 실체에 대한 초기불교, 중관·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근원적인,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것이라고 명쾌하게 답하기 어려운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인간 내면의 문제에 가장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불교에서의 관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성찰하고 있다. 권석만, 김진무 외 | 신국판양장 | 504쪽 | 23,000원



###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마음의 작동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인지과학에서의 성찰 형체가 없어 보이기도 짐을 수도 없는, 분명 존재하지만 도대체가 그 실체를 알기 어려운 마음의 존재와 작용 방식에 대해, 가장 오래된 연구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와 제반 인접 학문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어, 마음 연구를 위한 총체적 원리 역할을 한다. 미산, 윤원철 외 | 신국판양장 | 396쪽 | 20,000원



###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몸의 작용,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초기불교, 선불교, 동양철학, 서양철학, 의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물질과 정신, 몸과 영혼의 문제는 인류 지성 앞에 던져진 가장 근원적인 의제 중의 하나이다. 몸은 마음(영혼, 정신)의 부속물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아니면 서로 동등한 입장의 동업자인가? 이 책은 '몸'의 역할과 정체를 '마음 공부'의 측면에서 성찰하고 있다. 우희중, 성태용 외 | 신국판양장 | 424쪽 | 20,000원